

國語辭典：그 表題語의 選定과 排列問題

金 敏 洙
(高麗大 教授, 國語學)

1. 辭書論과 辭書의 種類

國語學에서도 應用部門의 하나로 辭書論(lexicography)이 성립된다. 辭書編纂法이라고도 하는 이 부문은 辭典을 편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서 그 내용은 辭典의 목적과 表題語의 종류 및 註釋의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 첫째, 辭典의 목적은 예상되는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설정함으로써 그 辭典의 종류가 결정된다. 둘째, 表題語는 이 목적 여하로 결정되나, 그 蒐集範圍나 排列方式에 따라 辭典의 종류가 달라진다. 셋째, 註釋의 방법도 그 목적에 따라 정해지나 역시 방식 여하로 달라진다.

그러면, 辭典은 그 목적에 따라 종류가 결정되고, 또 그 종류에 따라 용도가 달라진다. 그런데, 이 목적은 구체적으로 그 辭典構成에 나타난다. 즉, 辭典은 그 表題語의 선정과 註釋의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이 두 기준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辭書는 語彙인 辭彙를 모은 辭典과 事項을 모은 事典으로 양분된다. 한때 辭典을 字典이라고도 했었으나, 字典은 원래 漢籍의 字書를 이른 말이다.¹⁾ 따라서, 오늘날 語彙에

1) 西洋人の 對譯辭典은 「韓佛字典」(1880), 「韓英字典」(1890, 1897), 「법한字典」(1901), 「韓英大字典」(1931) 등과 같이 字典이라고 했었다. 1880년대에 종래의 「康熙字典」의 예에 따라 字典이라고 했던 전례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名詞를 淸國 馬建忠의 「馬氏文通」(1898)에서 名字, 周時經의 「대한국어문법」(1906)에서도 名字라고 하여 字를 單語의 뜻으로 사용한 것과도 관련된다.

대한 辭典과 漢字에 대한 字典을 구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예전에는 字書와 類書로 구분했다. 辭典에 해당하는 字書는 다시 셋으로 나뉜다. 첫째, 聲音을 주로 하는 音韻字書 즉 韻書는 그 音引字典, 둘째, 形體結構와 用法을 주로 하는 字形字書 즉 玉篇은 그 劃引字典, 셋째, 意味를 주로 하는 訓詁字書 즉 「爾雅」는 그 類引字典이다. 小學²⁾이라고도 하는 이 字書에 대하여 事典에 해당하는 것을 類書라고 했다. 그러므로, 字書는 배열 방식에 따라 나뉘었고, 類書는 事項과 語句를 분류하여 편찬한 관계로 대개 百科事典과 같은 성격이었다.

예전에 우리 國語辭典은 없고, 이런 字書와 類書가 행해졌었다. 편찬된 종래의 우리 辭書로서 類書는 字書에 비하여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表題語의 범위와 그 배열 방식은 별개의 차원이므로, 類書에는 音引인 韻府式과 類引인 類解式의 두 종류가 있다. 類解式이란 對譯辭典인 「譯語類解」와 같은 天文, 地理, 人倫 등의 意味別 배열을 가리킨다. 최초의 朝鮮辭書인 權文海의 「大東韻府群玉」(1798)은 韻府式 漢字에 事項을 수록한 類書인데, 李睟光的 「芝峰類說」(1614)은 전형적 類解式이다.

예전에 國語辭典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李成之의 「才物譜」(正祖代)나 柳 僖의 「物名考」(純祖代) 같은 것은 國語辭典이라고 할 수가 있다. 表題漢字語와 國語註釋을 뒤집어 보고 하는 말이다. 특히 漢學, 蒙學, 倭學, 淸學 四學에 걸친 당시 譯官用 類解類는 外國語基礎語彙의 對譯辭典이므로, 역시 엮바꾼 것은 國語의 語彙辭典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후대의 「韓佛字典」이나 「韓英字典」과 같은 것이어서 어디까지나 對譯辭典이지 완전한 國語辭典은 되지 못한다.

요컨대, 辭典은 語彙를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그 發音, 意味, 語源, 用例 등을 주석한 책이며, 事典은 事項을 나타내는 語彙를 모아 그

2) 人生八歲 則自王公以下 至庶人之子弟 皆入小學 而敎之以灑掃應對進退之節 禮樂射御書數之文(朱熹, 「大學」章句序)라고 하여 六藝를, 漢時 稱文字學以爲小學(「隨意錄」)이라고 하여 文字學 즉 言語學을, 淸高宗의 「四庫全書」에서는 訓詁之屬, 字書之屬, 韻書之屬을 小學類라고 했다. 이 小學類는 漢籍의 字書類를 총칭한 말이다.

내용을 해설한 책이다. 또한, 字典은 漢字를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그 音, 意味 등을 주석한 책이다. 辭彙, 事彙, 字彙란 말로 대조되나, 辭典이란 말은 1910년대에 정착된 것으로 믿어진다.³⁾ 이 辭典은 그 表題語에 따라 시대별로 古語, 現代語, 新語, 사회별로 方言, 隱語 등, 註釋에 따라서도 發音, 語源, 類義 등의 特殊辭典으로 분류된다.

한편, 事典도 그 表題語에 따라 百科, 人名, 地名, 분야별 專門語 등으로 나뉘나, 그 註釋에 따라서는 簡約版, 圖解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 情報洪水時代에 처하여 날이 갈수록 수많은 종류의 辭書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편찬되고 있지만, 특히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여 혼합한 事典式 辭典, 字典兼用, 韓英兼用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의 辭書發展이 크게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거니와, 그 情報의 폭은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해지지 않을 수 없다.

2. 辭典과 表題語 選定

辭典은 어떤 말 개개를 수록하여 거기에 일일이 어떠한 지식을 제공한 것이므로, 문제되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먼저 그 말의 범위와 배열이다. 수록될 語彙의 성질로는 일찍부터 어려운 말만을 주석하는 것이었고, 그 배열은 類引의 경향이었다. 近世朝鮮類書가 거의 그러하거니와, 과거의 「語錄解」는 集註의 좋은 실례라고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兩國語對譯이 일찍부터 필요했던 것은 당연하고, 同一語註釋이 그 編纂史上 후에 주역을 맡게 되었다는 것도 능히 짐작됨직한 일이다.⁴⁾

- 3) 日本에서는 그들의 辭典을 字類, 類聚, 節用集이라고 하는 한편, 洋學이 유행함에 따라 英學에서 辭書(1825), 字典(1854), 字彙(1854), 辭林(1871), 辭典(1874), 玉篇(1878), 字書(1881), 辭彙(1885) 등이라고 했었다. 그들의 辭典도 辭林(1871), 辭典(1888), 辭書(1893)라고 하다가 1890년대 이후에는 辭典이란 말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언문옥편(1896), 국문옥편(1897), 字典(1904, 1907), 國文字典(1906), 말모이(1914), 辭典(1914, 1915, 1916, 1920)이라고 했다.
- 4) 과거의 우리 辭書는 실제로 兩國語對譯(bilingual (multilingual) dictionary)의 성질이라고 하겠으나, 특히 四學의 類解類는 대표적인 對譯辭典이었다.

1) 辭典編纂의 基本態度

대부분의 辭典編纂者는 순정한 用語만을 골라, 그 모범적 意味를 기록하고, 권위있는 用法을 규정함으로써 당대의 言語를 되도록 고정시키자는 것이 주어진 의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은 規範의 態度라고 하겠는데, 과거의 辭典이 대개 이 태도로 편찬되었고, 오늘날도 역시 標準辭典의 수효에 따라 그 태도를 답습하고 있다. 과거처럼 言語規範이 엄연하여 권위를 가졌을 시대나 오늘처럼 그것이 부실하여 혼란한 사회에서는 표준적인 規範辭典만을 의식하고 그 존재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西歐에서는 라틴語에 대한 集註에서 발달한 對譯辭典이 처음 행해지다가 17세기에 비로소 각국에서 辭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綴字와 用法을 고정시키기 위한 標準辭典의 성격이었다. 점차 목적했던 言語의 規範固定이 맺어지자, 19세기에는 記述的 態度로 전환하게 되었다.⁵⁾ 즉, 辭典이란 망라된 在庫目錄(inventory)이며 역사적 기록이라고 보고 종전의 통제적 固定에서 전환한 것이다. 辭典編纂者는 言語의 批評家가 아니라는 이 관점은 辭典의 전문적 심화를 크게 촉진시켰다.

同一語註釋(monolingual dictionary)은 제도적 요인도 겹쳐 뒤늦게 1910년대 에야 편찬되기 시작했다. 출판된 그 초기의 辭典을 보면, 集註(glossary)로서 최초의 國語辭典으로 보이는 沈宜麟 編, 「普通學校 朝鮮語辭典」(1925)은 索引의 성격을 띤 難語集이었다. 金熙祥 編, 「朝鮮語와 漢文補充 常識便覽」(1928), 李泰洙, 「初等教育 朝鮮語標準辭典」(1938)도 그러하고, 難語集의 성격을 벗어난 최초의 國語辭典은 文世榮 編, 「朝鮮語辭典」(1938)이다.

- 5) 西歐의 翰林院(Academy)은 17세기초에 言語의 規範化, 醇正化, 固定化의 요구에 따라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 목적을 위한 辭典은 伊太利(Accademia della Crusca. *Vocabolario degli Accademici della Crusca*. 1612), 佛蘭西(*Le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1694~95)에서 일찌기 출판되었고, 英國에서는 개인(Samuel Johnson. *A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755)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言語의 自然發達을 무시한 견해라고 비판하고, 歷史의 原理를 바탕으로 實證的 編纂을 취한 言語學的 見解가 일어났다. 英國의 ND (Charles Richardson. *A New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836~37), 유명한 NED (J.A.H. Murray, H. Bradley W.A. Craigie & C.T. Onions. *A New English Dictionary on Historical Principles*. 1884~1928. 1895년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OED)로 개제), 역시 유명한 獨逸의 DW(Jacob Grimm, Wilhelm Grimm. *Deutsches Wörterbuch*. 1852~1943) 등이 이에 속한다.

먼저 생각할 것은 辭典이 國家主義를 표방하는 문제와 事典式을 겸하는 문제다. 전자는 순수한 客觀主義에서 다소간 國家主義로 지향하는 경향이 며, 후자도 그 用法에 중점을 두었던 초기의 語彙辭典이 점차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人地名 기타를 가미한 事典式으로 변천하는 경향이였다.⁶⁾ 전자는 같은 言語라도 나라가 다르면 言語分化的 이치에 따라 基準語와 綴字法 및 意味用法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事典式은 이와 다른 차원에서 情報의 급증에 따른 시대적 요청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記述的 態度는 이미 언급한 대로 하나의 발전이었다. 그것은 중전의 기술적 規範辭典에 대하여 새로운 실증적 記述辭典을 뜻하며, 그 편찬은 言語의 調査者 및 歷史家가 기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辭典의 순수한 記述性은 1960년대에 이르러 辭典이 言語의 管理者로서 規範性을 겸해야 한다는 비판에 부딪혔다.⁷⁾ 이 역사주의적 記述性 대 실용주

6) 美國에서는 18세기 西歐의 辭典에 대하여 美國獨自의 것을 편찬하고 事項을 가미하기 시작했다. 事項을 포함시킨 7단 語彙의 Webster(Noah Webster. *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828)에서 취한 國家主義的 革新은 온건한 Worcester(Joseph E. Worcester. *A Comprehensive Pronouncing and Explanatory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830)와 대립하여 무릇 35년간의 辭典戰爭(the War of Dictionaries)이 계속되었다. 反英과 예일大學 대 親英과 Harvard大學의 이 대립은 Webster 1864年版으로써 Webster의 승리로 종식되었다. 事典式的 경향은 W.D. Whitney(1889~91, 1911), I.K. Funk(1893~94, 1913) 등에서도 농후했고, 특히 世界大戰 이후에는 각종 情報暴發의 여파로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해졌다. 國家主義는 解放後 北韓이나 延邊朝鮮族自治州 등 國籍이 다른 상황에서 보면 表記와 註釋에 두루 나타나서 이질화가 가속된다.

7) Webster 1934년 第2版은 55만 語彙의 事典式 大辭典으로서 辭典界를 풍미했으나, 심혈을 기울인 그 1961년 第3版은 시대적인 構造言語學의 배경으로 事項이 빠지고 記述性이 길게 반영되었다. 실망과 비난을 안긴 그 지나친 記述性에 대하여 RHD(Jess Stein, *The Random Hous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966)에서는 현실적인 記述만 아니라 敎化가 있어야 한다는 規範的 態度를 취했다. 또한, AHD(William Morris,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969, 1982)에서는 무비판적 實態記述이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言語表現을 정확하게 세련되게 이끌어야 한다고 더 적극적인 태도로 편찬했다. 이 전통적 規範性은 폭발적인 환영을 받았는데, 西歐에서도 英國의 Longman, 佛蘭西의 Larousse 등 규범적 事典式이 점차 광풍을 받는 경향이다. 한편, 1960년대에는 이른바 四文字語(four-letter-word) 즉 性에 관한 타부語로 논쟁이 일어났으나, 이옥고 OED 新補遺篇(1972~86)의 예에 따라 수록하기로 낙착되었다.

의적 規範性은 결국 상반된다기보다 피차의 단점을 보완해서 발전하는 시대적 요청에 충족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요컨대, 辭典編纂에 대한 태도는 초기의 실용적 規範性에서 역사적 記述性으로 바뀌고, 거기에 規範性을 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대체적인 경향이며, 실제로는 그 어느 성격의 辭典인들 불필요할 까닭이 없다. 이 記述性和 관련하여 취하던 客觀主義는 규범적 記述性和 함께 國家主義의 경향을 나타내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취하던 語彙爲主는 事典式을 겸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이 변모는 시대의 추이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전환된 경향이기에 때문에 무시하기 어려운 문제로 생각된다.

2) 國語辭典의 表題語

近代代가 앞은 우리에게는 아직 國語規範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辭典의 規範性이 매우 중시된다. 그 規範化는 엄밀히 말해서 1945년 이후 40여년의 역사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 합리적 수정은 고정되기에 앞서 서둘러야 한다는 계산이 명백하다. 따라서, 西歐의 전례처럼 그 翰林院과 같은 국가적 國語研究院의 설립이 매우 긴급하다. 그 우선과업이 규범적인 標準國語辭典의 완성이며, 그 완성은 곧 言語規範의 접근대적 혼란을 증식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발전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추세로 보면, 그 規範化가 이루어진 뒤에 올 것은 辭典의 역사주의적 記述性이다. 그런데, 기술적이고 실증적인 이 辭典은 많은 語彙를 최대한으로 거두어 그 註釋의 意味와 用法도 망라해야 하므로, 바른 用例만을 열거하던 종래와는 달리 國語史를 소급하기 위하여 뽑힌 文獻의 例文이 매우 중요시된다. 동시에, 有史以前으로 거슬러 同族語와의 관계를 밝혀야 하는 관계로, 語源이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의 동원과 실증적 자료의 수집이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그 전형인 英國의 옥스퍼드辭典 10권이 1859년에 착수한지 70년 만인 1928년에 드디어 완성되었다.⁸⁾ 또한, 1933년에 別冊 2권과 補遺篇 1권, 1986년

8) 이 辭典은 語彙만을 수록한 表題語 414,825개, 그 用例 1,827,306개, 引用作家 약 5천, 別冊을 합친 12권 중 15,478면이라는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 英語變遷을 실증적으로 기록한 역사적 辭典으로서 옥스퍼드大學의 人文學의 學

에 新補遺篇 4권이 간행되었으니, 도합 17권의 완결은 130년에 걸친 일대 사업이다.⁹⁾ 이 실증적 記述辭典의 表題語는 오직 語彙가 대상이다. 事項이 제외되므로 20만이라도 방대하다고 하겠다. 필수적인 그 例文은 索引이라는 면에서 索引도 광의의 辭典이거니와, 실증이 되는 이 例文의 충실은 이 辭典의 성패를 좌우할 문제로 중시된다.¹⁰⁾

역대로 國語辭典의 계획은 많았으나, 출판된 것은 1920년에 나온 「朝鮮語辭典」이 최초로 꼽히고 있다.¹¹⁾ 이것은 당시의 기술적 規範辭典이다. 規範의 고정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나, 表題語로는 事項을 빼고 쉬운 말을 포함시킨 語彙辭典이다. 명실 함께 國語辭典이라고 할 것은 1938년 文世榮의 「朝鮮語辭典」이며, 다음은 1947년 이윤재의 「표준 조선말 사전」이

術傳統을 상징하는 英語學의 一大金字塔이며, 英國 言語文化의 위대한 紀念碑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 있음에 틀림이 없다고 높이 평가되고 있다. 각주 5) 참조.

- 9) 1842년에 창립된 英國言語學會(The Philological Society)에서는 1857년에 회원 Richard Ch. Trench(1807~86)의 제안에 따라 1859년에 그 辭典의 編纂方針을 결정했는데, 국내의 篇志閱讀者(volunteer reader) 천 수백명에게서 제공된 그 引用文 紙片(slip)은 6백만장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대사업은 1879년 言語學會와 옥스퍼드(Oxford University Press)와 회원 James A.H. Murray와의 계약으로 급진전되었다. 전반은 王室下賜金 年俸 250파운드를 받으며 J.A.H. Murray(1837~1951)의 주관으로, 이후는 William A. Craigie(1867~1957), Charles T. Onion(1873~1965), Robert W. Burchfield(1923~)에 의하여 편찬되었다.
- 10) 이 例文과 관련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특히 獨逸의 文體辭典이다. 가령, 表題語가 名詞인 경우에는 벗어나는 動詞와 形容詞, 副詞의 경우에도 벗어나는 動詞나 形容詞 등의 用例를 들어 言語의 바른 用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밥’에 대해서는 ‘이밥, 조밥, 보리밥, 찰밥,……, 밥을 먹는다, 밥을 짓는다, 밥이 질다,……’ 등의 實例가 갖추어진 辭典이 있다면, 內國人은 물론 外國人에게도 作文에 필수적인 것이 되어줄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結合理論(Valenztheorie)의 성과를 적용한 것으로 두넨(Duden. *Stilwörterbuch*. 1971)과 같은 것이다. 英語는 類義語集(thesaurus) 로제(P. M. Roget. *Thesaurus of English words and Phrases*. 1852. 28판을 거듭, 신판 1971. 1977)가 그런 유예 속한다. 中國의 분류 類義語集인 「爾雅」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음 1) 참조.
- 11) 이것은 日帝 朝鮮總督府 編纂이나, 內國人 朴彝(이)陽, 玄 鑾, 宋榮大, 金敦熙 4인이 작성한 草稿를 번역하여 朝日對譯辭典으로 만들었고, 그 草稿가 國立中央圖書館에 있는 만큼, 이것은 內國人이 편찬한 최초의 韓韓辭典이 되는 것이다. 金敏洙(1986) 참조.

다.¹²⁾ 이들도 역시 기술적 規範辭典이다. 그 表題語로는 앞의 것과 같은 성격의 語彙辭典이나, 그 종류는 서로 조금씩 넘나들고 있다.

日帝下 1931년에 착수하여 1942년에 초고를 완성한 朝鮮語學會의 「朝鮮語大辭典」은 26년 만인 1957년에 「큰 사전」 6권으로 완간되었다. 이것은 잔존한 그 초고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事典的 規範辭典이란 점에서는 공통된다.¹³⁾ 혼란기에 國語의 規範化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이를 기준으로 많은 辭典이 속출하게 되었으며, 「큰 사전」系로서는 그 후신인 한글학회의 「중사전」(1958), 「소사전」(1960), 「새한글사전」(1965)이 잇달았다. 다 「큰 사전」의 簡約版인데, 「중사전」만은 事項을 넣지 않았다.

「큰 사전」系 이외의 辭典은 유 열의 「현대 학생 우리말 사전」(1950), 국어국문학회의 「국어 새 사전」(1958), 신기철과 신용철의 「표준국어사전」(1958)과 그 개제판(1974), 이희승의 「국어대사전」(1961)과 증보판(1982) 등 이루 열거하기 어렵다. 이들 1950년 이후의 辭典도 각기 특징이 없지 않으나, 대개 事典的 規範辭典이란 성격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¹⁴⁾ 특히 개제판 4천여면에 35만 單語, 증보판이 4천 5백면에 30만 單語라는 大辭典은 실상 事項과 註釋이 비대해진 면도 적지 않다.

요컨대, 表題語의 측면에서도 語彙辭典의 초기단계는 國語의 規範化가

- 12) 1911년에 착수하여 10년만에 된 朝鮮總督府의 「朝鮮語辭典」은 46배판 983면에, 本來語 17,178(29.29%), 吏讀 727(1.24%), 漢字語 40,734(69.47%), 합계 58,639(100%)의 구성이다. 개인적으로 이룩한 文世榮의 「朝鮮語辭典」은 국판 1,634면, 그 修正增補版(1939) 1,854면이며, 이윤재(李允宰)의 「표준 조선말 사전」은 46판 908면이다. 그 表題語의 집계는 없으나, 추산하면 전자의 초판이 대략 8만 5천, 增補版이 9만 7천, 후자가 6만 7천 가량이다.
- 13) 초고인 「朝鮮語大辭典」은 1942년에 3~4권으로 간행할 예정이었다. 그 구성은 검토되지 않았지만, 金澤庄三郎의 「廣辭林」(1925)이 참조된 것으로 보인다. 1942년 朝鮮語學會事件, 6.25事變, 1954년 한글波動 등 많은 고초를 겪으며 변신된 「큰 사전」은 本來語 74,612(45.46%), 漢字語 85,527(52.11%), 外來語 3,986(2.43%), 합계 164,125(100%), 標準語로는 本來語 56,115(39.95%), 漢字語 81,362(57.92%), 外來語 2,987(2.13%), 합계 140,461(100%)의 구성이다. 表題語의 표준이 이후 같은 계통의 다른 辭典과 상충되어, 1960년대의 國語規範은 상당한 혼돈이 빚어졌다.
- 14) 이희승의 「국어대사전」(1961) 구성은 本來語 58,324(25.90%), 漢字語 150,935(67.02%), 外來語 15,944(7.08%)로 집계되었다. 이 집계는 그 表題語의 分布를 가능하기 위하여 요컨대, 기타는 집계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주된 목표이나, 그 목표가 달성된 후 제 2 단계는 語彙爲主의 역사적 記述辭典이며, 제 3 단계는 종합적인 事典的 規範辭典이다. 그러나, 國語辭典은 제 1 단계가 미완성인데 제 3 단계에 이른 셈이다. 서둘러 그 미완성을 극복하고 제 2 단계를 앞당겨야 하겠다. 다른 과제는 表題語의 質量을 떠나서 여러 特殊辭典, 특히 作文에 쓰일 類義語辭典의 편찬이다. 이것은 전통적이고 올바른 글을 쓰게 하는 作文辭典이 되겠기 때문이다.

3. 表題語의 排列問題

辭典의 表題語가 수집된 다음에 필연적으로 제기될 문제는 그 순서다. 辭典으로는 특이한 逆順辭典이 있으나,¹⁵⁾ 본질적으로는 音引과 類引으로 크게 양분된다. 音引은 한글字母를 기준으로 한 發音順이며, 類引은 語彙意味의 分類主題를 기준으로 한 項目順이다. 그런데, 이 排列順序는 이용자가 쉽게 색출하도록 되어야 하므로, 그 방식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위주로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얼른 보기에 매우 간단한 사항같이 생각될지도 모르나, 실제로는 다양한 排列形式이 있어 엇갈리고 있다.

1) 類引辭典의 排列

表題語의 排列은 가나다順이 보통이나, 이러한 音順이 그 語彙構造를 알려는 점에서는 적합지 않다. 그래서, 그 意味範疇 내지 生活領域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 따라 배열한 것이 있게 되었다. 辭典의 연원이 된 東西의 集註가 대개 이러한 類引辭典이었고, 종래의 類義語集이 거의 이 排列이며,¹⁶⁾ 근래의 類義語辭典도 이 방식이 적지 않다. 그런데, 그 分類를

15) 종래의 逆順(reverse)은 元 陰時夫의 「韻府群玉」(1270년경)의 예에 따라 편찬된 朝鮮辭書 權文海의 「大東韻府群玉」(1798)이었다. 그 韻字 아래에 수록된 熟語, 人地名 등의 순서가 逆順으로 배열되어 있다. 逆順辭典은 특히 語彙의 形態의 類型을 찾기에 매우 편리한데, 國語辭典으로는 최근에 유재원 엮음, 「우리말 역순사전」(1985. 9. 서울: 정음사)이 간행되었다.

16) 集註는 일종의 註釋難語集이며, 類義語集은 類義語辭典을 가리킨다. 각주 4), 10) 참조. 同義語辭典과 反義語辭典도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同義語(synonym)란 있기 어려우므로, 이 同義語는 類義語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래서, 同義語辭典보다 類義語辭典이라는 말이 흔히 쓰인다.

위한 意味基準을 일양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거기에 흔히 音引索引을 붙여 보충하는 예를 보아도 능히 짐작된다.

과거의 類解類는 단단계 분류이나, 物譜類는 2단계 분류도 있다. 그 分類基準이 과연 현대인에게도 편리한지 모르지만, 한두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령,

(1.1) 李成之, 「才物譜」(正祖代 寫本)

天譜(天—天地, 日, 月, 星辰, 天河, 風, 雲, 雨, 露, 霜, 雪, 雹, 霧, 雷, 電, 虹, 天幹, 地枝, 納音六甲, 古甲子, 年, 歷, 四時, 十二月, 日, 時, 鬼神—神, 福, 禍, 讖)

地譜(地—京畿, 忠清道, 慶尙道, 全羅道, 黃海道, 江原道, 平安道, 咸鏡道, 國都, 城, 國, 四夷, 邊塞, 郡, 郊, 道, 土, 山, 水, 田, 金, 玉, 石, 火)

人譜一(人—身, 五臟, 六腑, 精, 息, 汗, 眠, 夢, 容, 拜, 言, 笑, 哭, 嘆息, 噓, 呼, 疾, 死, 年, 男, 女, 小兒, 老人)

人譜二(人—倫—父, 母, 祖, …, 族, 戚, 姓, 名, 君, 臣)

人譜三(師, 朋友, 民, 士, 農, 工, 商賈, 方技, 庶流, 人品, 人事)

人譜四(禮, 樂, 兵, 刑, 附 法)

物譜一(物—物體, 物用, 用物, 聲, 色, 臭, 味, 數, 程, 宮, 舟, 車, 衣, 冠, 帶, 杖, 屨, 食飲, 布帛, 財貨, 什物, 技戲)

物譜二(羽蟲, 毛蟲, 鱗蟲, 介蟲, 昆蟲)

物譜三(穀, 菜, 果, 草, 木, 竹) (4類 140여項)

(1.2) 李嘉(哲)煥, 李載威, 「物譜」(1802. 寫本)

禾穀, 蔬菜, 木果, 草果, 花卉, 藥艸, 雜艸, 雜木, 鱗蟲, 介蟲, 水族, 走蟲, 飛蟲, 陸禽, 水鳥, 毛蟲, 身體, 族姻僧道附, 冠服, 飲食, 博戲, 第宅, 舟車, 疾病, 人倫, 雜物 (27項)

(1.3) 柳 僖 「物名考」(純祖代 寫本)

有情類(羽蟲, 毛蟲, 羸蟲, 水族, 鱗蟲, 介蟲, 昆蟲)

無情類(草, 木)

不動類(土, 石, 金)

不靜類(火, 水) (4類 14項)

등과 같은데, 4分法을 취한 1단계 분류가 주목된다. 이를 계승한 근래의 類義語辭典은 없고, 외국의 예는 많다.¹⁷⁾ 최근에 日本에서 분류한 예를

17) 歐美에서는 대부분 2단계 분류를 취하고 있다. 각주 10)에서 언급한 Roget系

보면,

(2.1) 國立國語研究所, 「分類語彙表」(1964)

體類(名詞類) (抽象的關係, 人間活動의 主體, 人間活動—精神及行爲, 生産物及用具, 自然物及自然現現)

用類(動詞類) (抽象的關係, 精神及行爲, 自然現象)

相類(形容詞類) (抽象的關係, 精神及行爲, 自然現象)

其他(餘他品詞) (4類 13部門 798項)

(2.2) 梅田博之, 「現代朝鮮語基礎語彙集」(1971)

人體, 衣, 食, 住, 道具, 生活·싸움, 人間關係, 社會·職業·生産, 移動·交通, 言語·傳達, 놀이·藝術, 授受, 對人動作, 對物動作, 一般動作, 知識·精神活動, 天文·地文·礦物, 植物, 動物, 形·色·音·臭, 性質, 空間, 時間, 數量, 代名詞等, 副詞·接續詞等, 助詞等, 重要單語, 連語 (28項)

등과 같다. 3단계분류는 많은 語彙를 분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다. 이런 뜻에서, 다단계분류도 생각하게 되는데, 문제는 역시 그 체계화와 이용자의 편리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하겠다.

이 문제는 하위단계보다 상위단계가 더 중요시된다. 위의 예로 보면, 제 1 단계는 종전의 物譜式과 근래의 品詞式으로 나뉜다. 物譜式의 4分法은 三才에 의한 분류로서 기묘하나, 현대인의 의식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현대적인 品詞式은 그 관점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달라지고, 같은 意味域에 속하는 語彙가 品詞差로 인하여 분산되는 것이 불편하다. 그런데, 제 2 단계는 단단계분류와 유사하므로, 단단계분류는 상위의 제 1 단계가 없는 셈이다. 이것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動植物의 分類體系는 이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것은

(3) 動植物의 分類 (7단계)

界(regnum, kingdom) (動物界, 植物界, 菌界)

門(phylum, division) (植物: 顯花, 隱花)

6類 1000項을 비롯해서 18類 940項, 24類 940項, 20類 910項, 10類 297項, 16類 178項, 12類 348項, 15類 368項, 3類 204項, 38類 2000項, 4類 200項, 22類 152項 등 다양하다.

綱(類) (class) (隱花: 苔蘚類)

目(類) (order) (苔蘚: 羊齒目)

科(family) (羊齒: 高사리科)

屬(genus) (고사리: 高란초屬)

種(species) (高란초: 무슨 種)

등과 같이 가장 정연한 分類法(taxonomy)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表題語가 많을수록 다단계 분류가 요구되고, 다단계일수록 찾을 것이 속한 상위단계를 옮겨 구분하는 것은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다. 가령, 위의 分類에서 高란초(卑蘭草)란 말을 찾는다면, 먼저 그것을 植物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혹시 動物로 판단하면 빗나가서 영영 찾지 못하게 되므로, 그 빗나가는 쪽은 하위단계일수록 좁다.¹⁸⁾

그러면, 類引辭典은 다단계 분류가 불가피하다. 다만, 3단계 이상은 찾느라고 헤맬 염려가 커지므로, 많아도 3~4단계 정도가 좋을 듯하다. 부분적으로는 물론 그 이상의 다단계가 필요하고, 또한 빈칸 때문에 단단계로 끝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天生萬物, 人爲萬事가 반드시 정연한 分類體系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 문제와 함께 그 分類法과 事項名이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 共通意味의 다단계 분류인 만큼, 제 1 단계는 총괄적이고 절충적인 것이 좋겠다.

요컨대, 類引排列은 音引排列로 불가능한 語彙의 意味域을 유형별로 나눈다. 이것은 語彙 사이의 聯想關係를 망라하는 특징이 있으나, 어려운

18) 物譜式이나 品詞式이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제 1 단계는 가령 이를 절충한 指示, 數量, 時間, 方位, 名詞, 動作, 形容, 修飾, 感歎, 接續, 接辭 등과 같은 10類 정도가 위의 4分法보다 나을 것이다. 그러나, 초보적이거나 적은 語彙는 단단계로도 족하다. 가령, 普通學校 5, 6학년용 金熙祥(1928)에서는 身體, 起居와 動作, 運動과 遊戲, 家事와 飲食, 衣服과 房具, 什物과 工具, 織物, 紙物, 建築, 物質의 形容과 色彩, 名數와 新舊度量衡, 通信과 書札, 旅行, 轎子와 船艦類, 吉事와 凶事, 婚禮, 疾病, 喪禮와 祭祀, 家族, 人物의 稱號, 社會와 階級, 國家와 外交, 皇室, 立法과 行政, 司法, 集會, 軍事와 軍器, 財政과 貨幣, 税金, 鐵道와 運送, 宗教와 神, 敎育, 學術, 文體와 書籍, 書體와 文房, 談話, 言行心思, 著術과 印刷, 音樂과 藝術, 動物, 礦物과 寶具, 植物, 職業과 生業, 天文, 時辰과 月別, 節序와 名節, 六甲과 五行, 地文 등 76항의 단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 分類基準의 설정이다.¹⁹⁾ 첫째, 分類段階는 類解의 단단계보다 物譜의 2단계가 더 낫다. 둘째, 중요시되는 제 1 단계는 物譜式이나 品詞式보다 이들의 절충이 더 편리하다. 셋째, 分類段階는 지나친 다단계보다 3~4단계가 적절하다. 그래도, 선명하게 배열되기 어려운데, 종종 語彙重出 및 音引兼用을 취하는 원인도 이러한 난점을 말하는 것이다.

2) 音引辭典의 排列

일반적으로 辭典이나 索引은 音引排列을 취하고 있다. 類引排列처럼 그 語彙構造의 유형을 찾기 어려운 대신, 表題語를 찾기 쉬운 것이 장점이다. 그런데, 그 排列은 알파벳의 경우와 달라서 하나의 방식만이 아니므로, 어느 방식이 색출에 더 편리한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하기야, 그 기본이 되는 한글字母의 순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순서를 실제로 적용하는 마당에서 다양한 처리방안이 제기되고, 그 처리를 둘러싼 의견이 辭典에 따라 엇갈리고 있는 것이 해결할 과제다.

이 문제는 자료가 될 辭典과 索引이 많이 있고, 의견을 제기한 수편의 논문도 있다. 이 문제를 종합하면, 우선 가나다順과 ㄱㄴ차례로 양분된다. 이것은 한글의 양면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후자는 한글字母를 알파벳과 같은 字母로 보는 관점이고, 전자는 그 운운결과로 나타난 音節을 한 글자로 보는 관점이다. 그리고, 가나다順은 다시 母音字와 子音字의 위치, 母音複合字의 순위, 된소리의 위치 등으로 인하여 그 순서가 엇갈리고 있다. 실상 ㄱㄴ차례는 알파벳처럼 풀어쓰기에서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현실적인 문제도 아니다.²⁰⁾ 그러면, 검토해야 할 대상은 오랜 전통을 가진 가나다順에 관한 반론이다.

19)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밀한 圖解辭典에 索引을 붙인 것이 나타났다. *The English Duden: A Pictorial Dictionary*. 1960. *The Oxford-Duden Pictorial Dictionary*. London: Oxford Univ. Press. 1981.

20) ㄱㄴ차례에 대해서는 崔鉉培(1936)의 논설, 朝鮮語學會의 「사정한 조선어 표준모음」(1936) 索引에 처음 보일 뿐이다. (金敏洙 1973a) 풀어쓰기를 전제한 崔鉉培(1936)에서는 가나다順은 21方式이나 되나, ㄱㄴ차례는 유일하고 과학적이라고 찬양했었다. 그의 저서 崔鉉培(1937, 1942)에도 적용했다. 최현배(1959, 1967)에 대해서는 각주 22) 참조.

한글의 가나다順은 멀리 崔世珍의 「訓蒙字會」(1527) 諺文字母로 소급된다. 이것은 이후 2세기 가량 걸려 일추 정착되면서 反切로 굳어졌다. 민간에서 널리 행해졌던 十五行反切은 일반적으로

(4) 諺文反切(反切表)

(4.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받침 9)

가까겨겨고교구규그기ㅁ 과귀 (中聲 13)

나 ...

⋮

하하허허호호후후호히ㅎ 화휘

(初聲 14)

(4.2) 각각각겨꼭꼭국극극국 꼭꼭

간 ...

⋮

개개게게괴괴귀귀괴 괴 괴 (複合字 12)

강강경경공공궁궁궁궁 광광

(5.1)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ㅅㅅ ...

ㅅㅅ ...

ㅅㅅ ...

ㅅㅅ ...

(된소리 5)

(5.2) ㅅㅅ ...

⋮

ㅅㅅ ...

등과 같은 조직이다. 흔히 (4.1)을 基本反切表로 하고, 제 2 단계에서 (4.2) 받침을 익히고, 제 3 단계에서 다시 (5.1)과 (5.2) 된소리를 익히는 순으로 전개시켰다. 그 특징은 소위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가 받침에 속하고, 된소리는 基本反切을 응용한 3단계라는 점이다. 이것이 反切組織의 원리임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反切組織을 바탕으로 한 가나다順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먼저 이 反切에서 본 字母의 종류²¹⁾는

21) 편의상 現行에 맞추어 쓰이지 않는 아래아(ㆍ) 따위를 빼고, ㆍ된入을 쌍글자

는 변종도 제기되었다.²²⁾ 이 변종은 한때 있었던 제안에 그쳤으므로, 排列上 母音의 위치는 다른 3개아마으로 엇갈리게 된 것이다.

한편, 문제되는 것은 母音複合字의 순위다. 이들은 전통적인 한글字母나 관습적인 反切表에서나 2차적 生成이란 것이 특징이다. 이 점에 입각해도 역시

(9) 母音複合字의 순위

- [illegible]

등과 같이 잘린다. 와위行的 위치에 따라 (9.1) 관습적인 反切順, (9.2) 보편화된 字母順, (9.3) 發音을 기준한 單複音順으로 나뉜다. 이것을 母音字 전체의 순위에서 보면 복잡하겠으나, 실제로는

- [illegible]

등 (9.4) 單複字順과 (9.5) 字母順이 나타났다. 한때 제기되었던 (9.3)은 없어지고, 기타 가능한 순위도 나타나지 않아서 (9.5)의 경향이 보인다.

또한, 된소리의 위치도 문제다. 이것은 反切表에서 3차적으로 생성된 複合字이며, 2차적으로 생성된 母音複合字과 또 다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리문제도

(10) 子音複合字의 순위

- (10.1) ㄱ[ㄱ]ㄴㄷ[ㄷ]ㄹㅁㅂ[ㅂ]ㅅ[ㅅ]ㅇㅈ[ㅈ]ㅊㅊㅅㅌㅍㅎ (朝鮮 1920, 조선어 1947, 유 1950, 여타) (14項)
- (10.2) ㄱ[ㄱ]ㄴㄷ[ㄷ]ㄹㅁㅂ[ㅂ]ㅅ[ㅅ]ㅇㅈ[ㅈ]ㅊㅊㅅㅌㅍㅎ (沈 1925, 文 1938) (14項)

22) 「韓佛辭典」(1880)이 그 예이나, 國文研究所(1909)에서는 이 순서를 채택했다. 崔鉉培(1936, 1959, 1967)는 처음에 ㄱ나차례를 주장했다가, 된소리를 붙여진 29項排列(다음 12.2)로 바꾸고, 다시 母音을 앞세운 (8.4)로 바꾸었다. 이것은 한때 母子順論爭으로까지 번지다가, 알파벳 崇拜者의 패배로 ㄱ나차례와 함께 종식되었다. 金敏珠(1973b, 1982~1987) 참조. 이런 反轉의 되풀이는 가나나順이 섞이지 않음은 다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10.3) ㄱ<ㄲ>ㄴ<ㄷ>ㄹ<ㄺ>ㅁ<ㅂ>ㅅ<ㅆ>ㅇ<ㅈ>ㅊ<ㅌ>ㅋ<ㅍ>ㅎ (이 1947, 李 1961
申, 1975)(14項)

등과 같이 엮인다. 된소리를 字母로 보지 않는 관점에서는 된소리의 (10.1) 隣接順, (10.2) 間歇順, (10.3) 分立順, 반면에 字母로 세우는 관점에서는 (10.4) 分立隣接順, (10.5) 單複字順으로 각각 나뉜다. 그런데, 複合字를 字母로 삼는 것은 한글 24 字母를 부정한다는 뜻이므로, 이것은 단순한 순위의 차이를 벗어난 원칙적 문제로 소급된다.

(11) 24 字母基準

등 8종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24字母로서 母音字의 內屬과 兩存이란 찾기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11.1)과 (11.11), (11.3)과 (11.31)은 각각 하나로 묶인다.²³⁾ 그러면, 그 排列法은 결국 저마다 3종으로 종합될 것이다.

3) 音順排列의 統一方案

알파벳과 같은 ㄱ-차례는 별문제로 하고, 엇갈리고 있는 가나다順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4字母基準의 본질은 表題語의 실질적인 項이 母音이 빠진 子音 14종이란 것이다. 즉, 이 사실은 24字母 그 자체가 알파벳의 관점이며, 전통적인 가나다順에서는 子音과 母音이 결코 대등한 字母가 아님을 뜻한다. 따라서, 가나다順은 子音 14項을 내세워서 배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면, 母音複合字는 정해진 字母順으로 되겠고, 母音字는 內屬이든지 兩存이든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반면에, 40字母基準은 그 項이 19종 내지 40종이며, 그 子音과 母音은 24字母와 달리 완전히 대등해서 字母와 字母 사이의 순서만이 문제될 뿐이다. 여기서 각별히 유의할 것은 子音複合字의 分立原則이 母音獨立과 함께 본질적으로 40字母의 관점이라는 사실이다. 이로써,¹⁾ 위에서 24字母를 검토하고 마지막 남은 과제 즉 된소리의 分立原則은 결코 24字母의 관점이 아니란 것이 밝혀졌다. 가령, <ㄱ>項 속에서 ㄱ을 섞는 것은 24字母의 방식인데, 분리하는 것은 40字母의 방식이라는 뜻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된소리의 分立은 된소리 5자를 분리시켜서 실질적인 29字母가 된다는 뜻이다. 실례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 (< >표 項)

23) 母音字의 兩存이란 위 (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語彙는 다 〇項 속에 배열해 놓고, 母音은 형식적인 項만을 24字母에 맞추어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24字母에서는 子音과 母音이 서로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 문제는 당연히 母音에만 관련된 사항이다. 이 점은 다음 (13) 對比例에서 확인될 것이다. 즉, 母音字의 兩存과 獨立의 차이로 구분된 그 (12.1)과 (12.2)의 排列順序가 같은 것은 이 예가 이와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른 부분은 <〇>項과 母音項에만 있다.

(13) 表題語 排列順序 對比例

(11.1) 14항	(11.2) 14항	(11.3) 14항	(12.1, 12.2) 29, 40항	(12.3) 40항
<ㄱ>	<ㄱ>	<ㄱ>	<ㄱ>	<ㄱ>
ㄱ	가	가	가	가
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까	가까스로	가각	가각	가각
가가	가각	가감승제	가감승제	가감승제
가까스로	가감승제	가개	가개	가진물
가각	가개	가진물	가진물	가결
가감승제	가진물	가계	가계	가고 문헌
가개	가계	가결	가결	가공 색도
가진물	가결	가제부	가제부	가교
가계	가제부	가고 문헌	가고 문헌	가규
가결	가고 문헌	가공 색도	가공 색도	가금
가제부	가공 색도	가파	가파	가기판
가고 문헌	가파	가괴	가괴	가개
가공 색도	가괴	가교 종렬	가교 종렬	가계
가파	가교 종렬	가권	가권	가제부
가괴	가꾸러지 다	가귀	가귀	가괴
가교 종렬	가권	가규	가규	가귀
가꾸러지 다	가귀 노름	가금	가금	가파
까꾸러지 다	가귀	가기판	가기판	가권
가권	가규	가까스로	가까스로	가나안
가귀	가금	가꾸러지 다	가꾸러지 다	가들가들
까귀	가꿈	가귀	가귀	가새풀
가귀 노름	가기판	가꿈	가꿈	가창오리
가규	가나안	가나안	가나안	가까스로
가금	가들가들	가들가들	가들가들	가꾸러지 다
가꿈	가새풀	가새풀	가새풀	가귀
가기판	가창오리	가창오리	가창오리	가금
가나안	ㄱ	각다귀	각다귀	각다귀
가들가들	까	진축 공학	진축 공학	진축 공학
까들까들	까꾸러지 다	금매화	금매화	금매화
까마귀	까귀	깊이	깊이	깊이

가새플	까들까들	ㄱ	<ㄱ>	<ㄴ>
가창오리	까마귀	까	까	<ㄷ>
까팡이	까팡이	까꾸러지다	까꾸러지다	<ㄹ>
				⋮
깎다	작다귀	까귀	까귀	<ㅎ>
작다귀	작두기	까들까들	까들까들	<ㅍ>
작두기	깎다	까마귀	까마귀	까
전축 공학	전축 공학	까팡이	까팡이	까꾸러지다
꿈지럭	꿈지럭	작두기	작두기	까귀
끊임 없이	끊임 없이	깎다	깎다	까들까들
금매화	금매화	꿈지럭	꿈지럭	까마귀
끼울다	끼울다	끊임 없이	끊임 없이	까팡이
깊이	깊이	끼울다	끼울다	작두기
<ㄴ>	<ㄴ>	<ㄴ>	<ㄴ>	깎다
<ㄷ>	<ㄷ>	<ㄷ>	<ㄷ>	꿈지럭
<ㄹ>	<ㄹ>	<ㄹ>	<ㄹ>	끊임 없이
<ㅁ>	<ㅁ>	<ㅁ>	<ㄹ>	끼울다
⋮	⋮	⋮	⋮	
<ㅎ>	<ㅎ>	<ㅎ>	<ㅎ>	<ㅌ>

등과 같이 排列方式에 따라 차이가 적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子音複合字인 된소리의 分立順은 24 字母基準 (11.3)과 40 字母基準 (12.1)이 실질적으로 같고, 다른 점은 후자에 형식적인 ㄱ項을 세웠다는 차이뿐이다. 즉, (11.3) 分立은 이론상 24 字母基準을 벗어난 일종의 변종이며, 40 字母 (12.1)로도 역시 母音項이 없어서 불완전하다.

이런 뜻에서, 24 字母基準에 맞는 것은 隣接順 (11.1)과 間歇順 (11.2)뿐이다.²⁴⁾ 그중에서는 한때 나타났던 間歇順보다 隣接順이 反切表에 비추어 더 전통적이고, 습관하기 타이라는 색출도 쉬운 편이다. 그러면, 24 字

24) 그 隣接順은 최초의 國語辭典이랄 朝鮮(1920)에 처음 나타났다. 이것은 편찬한 內國人(각주 11)참조)의 면모로 보아 反切表에 입각한 가나다順이라고 짐작된다. 반면에, 間歇順은 沈(1925)에서 비롯해서 文(1938)에서 나타났지만, 文(1938)이 李允宰의 지도와 韓澄 등의 교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排列은 마침 李允宰의 「文藝讀本」(1931) 附錄 한글綴字法一覽表에 비추어 그의 案일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그의 유저 이(1947)가 分立順인 것은 편자인 사위 金炳濟의 수정일 것으로 추측된다.

母基準은 (11.1) 隣接順 14 項으로 배열되어야 옳고, 한 項 속에서 ㄱ과 ㄱ을 알파벳처럼 가르는 것은 더욱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이런 (11.3) 分立順보다는 이와 실질적으로 같은 (12.1) 母音字兩存을 독립시켜 체계적으로 기억하기 좋게 된 40 字母基準(12.2)를 택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時代順)

- 國文研究所(1909). 「國文研究議定案」李基文, 「開化期の 國文研究」(1970. 서울: 一潮閣), 影印 5~14 면.
- 朝鮮總督府(1920). 「朝鮮語辭典」京城: 朝鮮總督府. 再版 1920. 京城: 岩田龜太郎.
- 沈宜麟 編(1925). 「普通學校 朝鮮語辭典」京城: 以文堂, 培英書館.
- 金熙祥(1928). 「朝鮮語와 漢文補充 常識便覽」京城: 以文堂.
- 朝鮮語學會(1933). 「한글 마춤법 통일안」京城: 朝鮮語學會. 金敏洙 외 2명 編, 「歷代韓國文法大系」第3部 第9冊(1983. 서울: 塔出版社) 재록.
- 崔鉉培(1936). “朝鮮語辭典에서의 語彙排列의 順序問題.” 「한글」4~7, 8~26 면.
- 조선어학회(1937). 「한글 마춤법 통일안」고친판 京城: 朝鮮語學會. 金敏洙 외 2명, 위 책, 재록.
- 崔鉉培(1937). 「우리말본」京城: 延禧專門學校出版部.
- 文世榮(1938). 「朝鮮語辭典」京城: 朝鮮語辭典刊行會. 修正增補 1939.
- 崔鉉培(1942). 「한글갈」京城: 正音社.
- 조선어학회(1947). 「조선 말 큰 사전」1, 서울: 을유 문화사. 2, 1949. 개제 「큰 사전」3, 1950. 4, 1957. 5, 1957. 6, 1957.
- 이윤재 지음, 김병제 엮음(1947). 「표준 조선말 사전」京城: 雅文閣.
- 유 열(1950). 「현대 학생 우리말 사전」서울: 현대사.
-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 문학 연구소(1954). 「조선어 철자법」평양: 과학원 출판사.
- 최현배(1955). 「우리말본」김고 고침 서울: 정음사.
- 국어국문학회(1958). 「국어 새 사전」서울: 동아출판사.
- 申瑞澈, 申瑠澈(1958). 「표준국어사전」서울: 乙酉文化社.
- 한글학회(1958). 「중사전」서울: 한글학회.
- 최현배(1959). “한글의 차례잡기에 관하여.” 「한글」124, 25~28 면.
- 한글학회(1960). 「소사전」서울: 한글학회.
-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1960). 「조선말 사전」1, 평양: 과학원출판사. 2, 1961. 3, 1961. 4, 1962. 5, 1962. 6, 1962.
- 李熙昇(1961). 「국어대사전」서울: 民衆書館.

한글학회(1965). 「새 한글사전」 서울 : 정양사, 홍자출판사.

최현배(1967). “사전에서의 올림말의 차례잡기.” 「한글」 140, 9~21면.

한글학회(1967). 「쉬운말 사전」 서울 : 정음사.

金敏洙(1973a). “한글字母問題에 대한 考察.” 「人文論集」 18, 1~48면. 金敏洙
(1973b) 재록.

金敏洙(1973b). 「國語政策論」 서울 : 高麗大學校出版部.

申琦澈, 申溶澈(1974). 「새 우리말 큰사전」 서울 : 三省出版社. 增補版 1975.

李熙昇(1982). 「국어대사전」 修正增補版 서울 : 民衆書林.

金敏洙(1986). “國語辭典의 어제와 오늘.” 「출판문화」 '86년 10월호(252), 4~6
면.